포스트-포스트 모더니즘(Post-Post Modernism) 시대에 예술을 위한 예술 L'art pour l'art을 기억하기

글. 정유선 뉴미디어 아티스트/서울여대 초빙강의 교수

프랑스어 'L'art pour l'art'는 '예술을 위한 예술'을 의미한다. 이 '예술을 위한 예술'(Art for Art's Shake)은 예술 자체를 예술의 목적으로 선언하고 예술을 종교, 정치, 도덕, 세계관 등 어떤 다른 목적이나 관심에서 분리시켜 어떠한 효용성도 거부하는 예술지상적 유미주의를 의미하는 철학적인 용어를 의미한다. 하지만 이 한 시대를 풍미했던 모더니즘(Modernism)의 낭만적이면서도 시적인 예술사의 용어는 현대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이 끝나고 정확히 언제부터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포스트-포스트 모더니즘(Post-Post Modernism)이라 불리는 현재의 시대에는 굉장히 지양해야 하는 예술의 탐미주의적인 태도로 규정되어 남아있다. 하지만 19세기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예술을 위한 예술(Art for Art's Shake)의 태도는 당시 주류의 예술을 비판하며 예술의 자율성을 부르짖는 예술가들의 진보적인 태도이며 외침이었다.

19세기 중반을 기점으로 프랑스 미술계는 크게 두 가지 예술 사조가 자리 잡고 있었다. 하나는 기존의 고전주의적인 양식을 답습하며 제도적으로는 국가 주도의 살롱 체제를 따르는 소위 신고전주의 자들이었다. 그들은 명실공히 제도권 미술 하에서 인정받는 그야말로 '정통'이었고 미술학교의 교육과정과 살롱 심사위원들도 이 정통의 계보를 이어받은 미술가들이 대부분이었다. 나머지 하나는 신고전주의적인 미술 체계를 포함하는 제도권 미술에 대한 반발작용으로 모인 일군의 진보적인 화가들이었다. 제도권 미술이 소묘에 대한 지나친 강박, 역사화라는 제한된 주제에 매몰되자 이에 반발하는 젊은 화가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들은 오늘날 미술사에서 당당히 한 켠을 차지하고 있지만 19세기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아직 기반이 매우 약했고 대중들의 지지 또한 약했다.

이러한 제도권 미술과 진보적인 예술가들의 갈등이 공론화된 사건이 있었으니 19세기 중후반기 영국의 대표 미술평론가로 활동하던 존 러스킨(John Ruskin, 1819~1900)과 동시대 화가인 제임스 맥닐 휘슬러(James McNeill Whistler, 1834~1903)의 웨스트민스터의 엑스체커 법정 다툼 사건이었다.

존 러스킨은 그 당시 방대한 근대 예술사를 집필하고 옥스포드 대학에서 예술사를 가르치는 대중의 존경을 받는 영향력 있는 예술평론가였다. 그

에게 호평을 받은 화가는 유명화가가 됐고, 반대로 혹평을 받은 화가는 대중적 인지도를 갖지 못할 만큼 러스킨의 비평은 미술계에 절대 영향을 끼쳤다. 러스킨은 고딕미술을 가장 가치 있는 예술로 여겼으며 고전 미술이 지닌 미적 아름다움을 지지했다.

제임스 맥닐 휘슬러는 사회의 관습에 구애되지 않는 자유분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예술인이었다. 그는 자신의 자유분방한 성격을 표현하기 위해 장식적인 옷을 즐겨 입기도 하고 다혈질적이며 괴팍한 성격을 가진 화가로 파리에서 영국으로 이주하여 활동한 신진 작가였다.

휘슬러는 1877년 런던 그로스버너 미술관에서 '불꽃'이라는 테마로 야상곡 녹턴 시리즈로 개인전을 열었는데 이때 그가 1875년에 그린 <검은색과 금색의 야상곡: 떨어지는 로켓 Nocturne in Black and Gold: The Falling Rocket> 작품을 보고 존 러스킨은 엄청난 혹평을 퍼부었다. 그의 작품이 페인트 통을 던진 완성도 안 된 작품이며 엉성하고 조잡한 구성으로 그린 작품의 가격으로 관객에게 200기니(파운드)를 달라고 한다며 괘씸하기 짝이 없는 행태와 터무니없는 작품 가격을 부른 사기꾼이라고 맹렬히 비난했다. 휘슬러는 이에 격분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시킨 것에 대해 존 러스킨을 1878년 11월 25일 런던의 웨스트 민스터의 엑스체커 법정에 고소했다.

존 러스킨 / 출처 : 위키피디아

존 러스킨은 그림을 제작하는 데 걸린 시간이 단 하루나 이틀 정도의 짧은 시간으로 완성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제임스 휘슬러는 이에 대해 작품의 예술성은 단지 그림을 제작하는 데 걸린 시간으로 판가름 나는 것이 아니라, 일생을 거쳐 갈고닦은 지식의 폭과 깊이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러스킨은 도덕적이며 계몽적인 사회적인 기능으로 예술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림은 예술로서 가치가 없다고 평가 절하했다. 하지만 휘슬러는 예술을 위한 예술(L'art pour l'art) 즉 예술 자체의 고민과 해답으로 얻은 주관적 해석에 의한 그림은 그 자체로써 예술이 될 수 있다며 예술의 순수성과 자율성을 피력했다.

사실 그 당시 마네 등을 비롯한 젊은 작가들은 당시의 아카데미즘에 반기를 들고 모더니티를 근본 사상으로 하는 자연관, 상상력, 현대선, 미의 정의를 새롭게 제시하는 새로운 경향이 생겨나고 있었다.

이들은 근대성을 주장하며 전통의 부정을 통해 새로움을 찾고자 하였다. 이러한 점은 전통적 원근법에 근거한 주류 그림의 부정으로 표현되었으며 이는 그 당시 서양 미술계로 유입된 일본 판화 우키요에의 평면적인 화면 구성에서 가져왔다. 또한 작품 속에 신화나 성화, 역사화 등과 같은 어떤 의도를 위해 내러티브를 담아내는 작품을 제작하지 않고 내용이 없는 순수한 그림을 그리고자 하였다. 그래서 그림 안에서 색채와 선, 형태와 리듬감

등의 자의적인 해석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구현하게 된 것이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새로운 의도와 생각들은 보편적인 사고와는 거리가 있다.

이 둘은 누구 하나 싸움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이 소송 사건은 작품의 완성 여부를 결정할 화가의 권리에 대한 대중적인 논쟁으로 번졌으며 세기의 미술 재판이 되었다. 길고 지루한 3년에 걸친 법정 공방 끝에 법원은 휘슬러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이 승리는 공허한 것이었다. 휘슬러는 소송에서 이겼지만, 정작 원하던 손해 배당금은 기각되고 말았다. 받은 금액은 1패딩(당시 4분의 1페니)이 전부였다. 그는 오히려 소송비용을 지불하느라 그의 자택까지 처분하고 결국엔 파산하고 말았다.

러스킨은 그의 지지자들이 소송비용을 지불해줘 재판 비용의 부담에서는 벗어났지만 최고의 비평가로서 그의 명성과 자존심에는 흠집이 가게 되었다. 그는 소송의 패소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 비평가가 소송비용을 청구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비평할 권리가 없다며 옥스포드 교수직까지 사임하기에 이른다.

현재 휘슬러의 녹턴 연작들은 미술사적으로 구상회화에서 추상회화로 이행하는 중간지점에 위치하게 된다. 그의 예술적 실험은 추상회화로 향해가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러스킨과 휘슬러의 사건은 다른 여러 가지를 시사하는 바가 있지만 예술을 위한 예술 (Art for Art's Shake) 즉 모더니즘적 태도와 미(美)를 창조와 완성을 유일한 목적으로 삼고, 예술의 자율성을 주장하며 예술이 다른 어떤 문화 영역에도 종속되거나 관여하는 것을 부정하는 사고인 예술지상주의적인 시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되었다.

이후 추상은 여러 가지 변주를 보이며 모더니즘 회화의 주요한 주제가 된다. 그리고 심지어 1915년 12월 러시아의 상트페테부르크의 한 갤러리에서 말레비치의 하얀 바탕에 유화물감으로 오직 검

<검은색과 금색의 야상곡: 떨어지는 로켓 Nocturne in Black and Gold: The Falling Rocket>
제임스 맥닐 휘슬러, 1875년 / 출처 : 위키피디아

당시 신문에 실린 존 러스킨과 제임스 맥닐 휘슬러의 법정공방을 다룬 카툰, Edward Linley Sambourne, An Appeal to the Law, Punch 1878 / 출처 : Tate.org

<검은 사각형 Black Square> 1915, oil on linen, 79.5cm×79.5cm, Tretyakov Gallery, Moscow / 출처 : wikipidia.org

<Betty> Gerhard Richter. 1988 102cm×72 cm Catalogue Raisonné: 663-5, Oil on canvas
포스트 모더니즘 회화 작가로 알려진 게르하르 리히터의 페인팅 / 출처: www.gerhard-richter.com

은 정사각형만을 그린 캔버스가 전시되며 추상의 극단적 형태까지 끌고 나가며 회화에서 대상이 아예 없는 순수한 추상까지 끌고 나가게 된다.

1950년대 말과 1960년대에 당시에 이미 인습적인 것으로 굳어져 버린 모더니즘의 신(新)아방가르드(Neo-avantgarde) 회화에 등을 돌리고, '회화의 종말(das Ende der Malerei)'을 선언할 때까지 예술을 위한 예술(Art for Art's Shake)은 계속되어왔다.

이후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회화에 와서는 다시 그림에 이야기를 담기 시작한다. 서술적인 회화가 다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현대사회의 부조리한 이야기들 즉 폭력, 인종 문제, 정치, 사회적인 이야기까지 다양한 내용이 작품의 주제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리고 예술 안에서의 예술을 찾아가던 태도는 아주 사소한 개인적인 내용에서부터 대중매체, 다른 미술사나 신화의 이야기까지 가져와 회화의 주제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사진, 영상, 뉴미디어 등의 새로운 매체의 언어를 빌리고 혼합하기도 하며 새롭게 회화를 해석하는데 힘쓰고 있다. 역사 속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모더니즘과 혼재되어 나타나고 모더니즘의 영향이 약화되어 포스트모더니즘이 도래하며 새로운 시기가 나타났듯이 현재 포스트 모더니즘이 끝나고 포스트-포스트 모더니즘이 도래하는 시기가 왔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한다. 포스트-포스트모더니즘은 다른 용어로는 메타모더니즘(Metamodernism)이라 부른다.
새로운 모더니즘의 새로운 그림은 어떻게 될까?